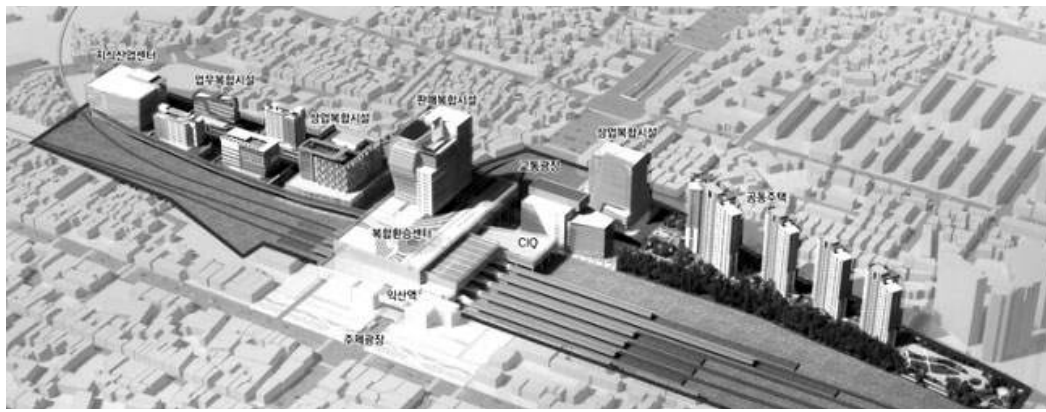


익산시, 철도에 역사·문화 접목 신산업 거점 조성

국토부 내륙첨단산업권 계획안 KTX익산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백제왕궁 체험단지 등 8개 반영 역사·문화 연계 성장동력 육성

익산시가 철도와 역사·문화를 연계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익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KTX익산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 철도 교통 네트워크 연계 강화 등 8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바탕으로 철도와 역사·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고도화해 지역의 성



KTX익산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복합개발 조감도.

장 동력으로 활용한다. 국토부 발표 사업에는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550억원), 유네스코 명품 가도(U-가도) 조성(498억원)이 포함됐다. 또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사업, 철도 교통네트워크 연계 강화 등이 최종 반영됐다.

영됐다. 국토부의 내륙첨단산업권은 전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익산시와 전주, 정읍, 완주 등 26개 시군이다. 이번 계획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내륙첨단산업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국토부 계획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반영되면서 익산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졌다"며 "반영된 사업들이 지역사회와 포용적으로 성장하고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연계 지자체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마무리 재개관



남원시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인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다시 개관했다. 시는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 지난 5월 착공했던 춘향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 25일부터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통해 춘향문화예술회관은 노후된 대공연장 내부와 무대기계 및 음향설비 등을 교체·개선했으며 객석 또한 새롭게 바뀌 재배치하고 냉난방 공조 역시 천정에서 바닥으로 변경하는 등 쾌적한 공연관람을 위한 환경을 갖추게 됐다. 이 밖에도 공연 시작 전 출연자들이 휴식 및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무대 뒤편에 별도의 연습실도 마련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반려 식물 진단받고 분갈이 배워 보세요”

정읍시 내달 1일 체험 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발맞춰 건강한 반려 식물 관리를 위한 분갈이 체험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 식물의 생육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2월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농업기술센터 사계절 치유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반려 식물의 상태 진단과 가지치기, 거름주기 등 상담을 통해 평소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반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식물 종류에 따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반려 식물을 키우고 있으며 분갈이가 필요한 정읍시민 50여 명이며, 모집 기간은 26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은 반려 식물 재배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 식물 재배를 통해 공기정화 효과와 심신 안정, 삶의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지로 거듭난다

10개 사업 국토부 계획 반영

한전 전력 클러스터 구축도 주목

고창군이 노을대교·전력에너지클러스터 등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안권과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이 국토부를 통해 최종 고시됐다. 고창군은 서해안권 발전사업으로 모두 10개 사업에 1조3514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예산 지원 등으로 추진 동력이 불을 전망이다.

'서해안 관광벨트'는 고창의 노을대교를 시작으로 충남,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서해안 관광도로(선셋드라이브)를 조성해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게 된다.

또 '고창전력 에너지 4차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0월 고창전력시험센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시험장'을 준공하는 등 고창군이 정전 전기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심원면 염전부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도 반영돼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완충지대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를 마련하고 서해안권 해양생태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창 문화유적공원 조성, 근대민정신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서해안 고속도로(동서천-서김제-고창) 확장 등도 담겼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중국 등 급부상하는 동북아 경제권에 적극 대응하고, 서해안권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서해안권 지자체의 대·내외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활황해안 시대 개척에 고창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군산시 우수기관 장관상

군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세무서 등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전문가 현지검증, 체험평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올해는 18개 기관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다.

시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민원창구별 색상을 부여해 민원창구 안내 표지의 식별이 쉽게 하고, 민원인 대기 공간과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해 민원실을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사진>



또 군산 추억기념 포토존, 북카페, 정보검색코너, 건강 체크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 배려대상자 전용 창구인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높이가 다양한 민원 서식대 설치, 휠체어와 보정기 비치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

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인 만큼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하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내달 8일까지 유기질 비료 신청하세요”

순창군이 다음달 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지역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여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 농협 등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부산물 비료(유기질 비료, 부속유기질 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내년도 공급받을 때에도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유기질 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속유기질 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등 총 5종으로 신청 물량은 농지 1000㎡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에 신청한 유기질 비료는 농가별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지속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점차 줄여 나갈 것”이라며 “유기질 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농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